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CONTENTS

차례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신을 깨닫기 위해 내면의 스승을 찾아라.....	13
2장	전쟁의 원인	33
3장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59
4장	내면의 소리는 무한한 사랑을 창조한다.....	71
5장	깨달은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81
6장	구원자는 세세생생 존재한다	97
7장	신을 사랑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105
8장	신을 깨달은 자와 신의 메시아.....	127
9장	1부: 예수는 구세주 중의 한 분이다.....	141
9장	2부: 내면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49
10장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자	155
11장	닫혀 있는 내면의 힘을 열어젖히자.....	177
12장	지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193
13장	어디에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209
14장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227
15장	이 세상 너머의 신비.....	249
	관음법문 입문과 5계	297
	간행물 안내	300
	주요 연락처	302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1장

신을 깨닫기 위해 내면의 스승을 찾아라

1991. 3. 9. 미국 보울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놀랍기도 하고요. 이 방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모두들 아름답다고 밖에서 들었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콜로라도의 보울더가 매우 영적이며 에너지가 상서롭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콜로라도 보울더에서 발행되는 영적 잡지를 통해서 알았지요. 사실 나는 지난 2년 동안 간혹 콜로라도로 부터 초청을 받았습니 다. 처음엔 텐버였고 그 다음은 보울더였습니 다. 초청을 여러 번 미뤘는데 이번에 미국을 순방하게 되면서 이곳에 들러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안녕 하십니까? (대중: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또는 수많은 생애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아무

도 모르지요. 우리가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식, 신성神性 또는 선禪이나 도道를 체득하고자 다양한 법문을 수행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생김) 내 목소리가 이제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소리칠 때가 아니면 아주 작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때로는 여성의 모습으로 내 의무를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여성적이 되어야 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자만이 부처(완전히 깨달은 존재)나 예수, 무상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여성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처, '개발되지 않은 부처'입니다. 마치 나라는 다 같은 나라라도 미개발 국가와 선진국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특정한 기법이나 특정한 생활 방식 또는 일상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특정 방법을 따르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바람직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웃으심)

다양한 수준의 삶이 존재하지만 모두들 신의식神意識 속에 살거나 진정으로 불성과 만나거나 깨닫는 삶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상법으로 이 신의식, 또는 불성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하는 것은 우리의 참되고 위대한 본성을 깨닫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명상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며, 올바르게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어도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명상을 하거나 우리 내면의 본성에 다가가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면, 우리는 즉시 어떤 깨달음을 발견하거나 위대한 진아眞我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물질적인 육체뿐만이 아닌 그 무엇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마냥 고양된 느낌일 것입니다. 진짜 흥분된다는 건 아니고요. 언어의 힘은 극히 제한돼 있어서 신의식을 향해 바른 환경이나 바른길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신성한 황홀경을 표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즉각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그 방법이나 그 길을 따라 신에게 다가간다면 매일 진보하고, 우리의 해탈과 위대함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자신에게 “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그것이다.” 또는 “나는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때 우리에게겐 자만심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진정으로 깨달은 자신을 발견했고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는 안다는 극히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

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저 알았다는 것이 행복할 뿐입니다. (스승님 웃으심)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칭 부처라고 하거나 부처라고 불리면 오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는 아주 특별한 경우, 즉 제자들이 요구하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부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나 부처 또는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부처, 스승이 매우 거만하며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주장하고 싶어한다고 오해하거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이제 난 의사가 되었다!”라거나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 온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불한 후에는 성불했다는 것을 대단찮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다. 부처가 된 사람은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비심을 잃었거나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이 세상에 대한 현실감을 다시 찾게 되고, 자신이 부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닫지 못한 이들, 즉 자신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부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성불하는 길을 보여 주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런 우월감이나 자만심 없어요. 다소 놀랄지는 몰라도 (스승님 웃으심) 자만심은 없습니다. 아마도 “왜 그걸 모를까? 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를까?” 하고 놀라기는 할 겁니다. 예, 부처, 스승들은 가르침을 전하는 동안 항상 놀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해하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부처를 일컬을 때는 그리스도나 구세주, 살아 있는 진정한 큰스승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경을 읽는 데 보냈습니다. 다른 경전들도 읽지만 어릴 적부터 불교 용어와 친숙했기 때문에 자주 부처와 불경을 언급하게 됩니다. 내가 불교만 지지하고 기독교나 다른 위대한 종교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종교를 찬성합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가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나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나 교리는 달, 즉 진리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신성, 신의 왕국, 불성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뚜껑을 열어야만 합니다. 곧바로 그럴 수 있는 기법

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스스로 신의 왕국 전체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복이나 지혜를 위해서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인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대개 감각적인 쾌락을 좋아합니다. 먹고 자고 온갖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좋아하며, 게으른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뿐, 우리의 마음과 이상을 일에 쏟아 붓진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물질적인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거나 인류 대중을 위해 보다 유익한 일을 하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관점의 이야기일 뿐,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위 감정적인 수준입니다. 이 감정적인 수준에서는 자기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대단히 거만하거나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고 여기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수준은 많은 독재자들과 급진적인 ‘지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정적이라서 감정적인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추구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 길이 틀

렸을 때에도 그들은 고치거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합니다. 융통성이 없으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수준은 지성, 물질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은 원래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컴퓨터로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온갖 데이터를 어떤 지성이나 판단 없이 아주 충실하게 출력합니다. 만약 여기에 영혼의 지혜를 불어넣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동 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자동 기기, 즉 깨닫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자동화된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고는 동굴 같은 곳에 숨어 버리거나 어떤 이상 속에 파묻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함 없이 함(爲無爲)’의 길은 이와는 다른 수준으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일에 상관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러 과정의 경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각기 다른 깨달음을 체험하고 지혜를 넓히게 되며 결국 언젠가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좀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이른바 영혼, 자아의 수준, 자아를 깨닫는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영혼이며,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영혼의 빛 때문에 우리가 총명하며, 영혼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자비심과 느낌 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돕고, 스스로 기쁨과 행복, 인류로서의 고귀한 목표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수준, 자아를 깨닫는 수준입니다. 이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영혼과 동일시하며, 우리와 영혼, ‘영감靈感의 근원’이 같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고의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에고ego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너무 번잡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우리가 비록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해도, 거기에는 아직 ‘나’와 ‘아버지’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예, 모순적인 말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 이상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스승이건 지구에 오면 자신의 수준을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낮춘 후 서서히 사람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ABC 쓰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의 손을 잡고 쓰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자신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많은 문장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아를 깨닫는 단계를 지나면 신의 경지, 신의식(God-consciousness) 또는 신을 깨닫는 수준(God-realization)에 이르게 됩니다. 신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깨닫는 경지에서조차 그 사실을 모른 채 신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습지 않나요? 무신론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설명하기가 참 어렵군요. 좋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스승님 웃으심)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신을 깨닫는 수준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다는 생각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며, 그냥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근원, 모든 행동과 모든 결과의 근원이지만 그에 따른 업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지만 아직

은 미흡한 것 같군요. 그렇지만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깨달음에 따라 나도 더 ‘깨닫게’ 되어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감정적 또는 자동화된 지적 수준, 혹은 기껏해야 자아를 깨닫는 수준에 있습니다. 신의식의 수준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신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한 “신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신의 왕국은 관찰이나 추리, 지적인 분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길은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도로 잡아채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선사(禪師)들이 경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신론적인 것 같지요. 때로 석가모니불 또한 언더리가 났을 때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곤 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의 말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런 신은 없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구절에 집착한 나머지 부처가 신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신이 있다거나 없다고는 말하지 않

겠지만,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돌아가는 하나가 존재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한두 문장만을 분석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또 다르다.’라고 구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때로는 이 ‘주의’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슬픈 일이지요.

예전의 예언자나 스승들은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을 깨닫고 나면 아마도 언어의 표현력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승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다면, 그가 각각의 제자들을 몸이나 말로 항상 돌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서서히 스승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면의 스승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고 바로 신이며 부처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우리 내면의 부처, 스승이 깨어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내면의 스승이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많은 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깨어나서는 일하게 되지요. 물질적인 수준에 있으면 몸만 움직이고 몸이 요구하며 행합니다. 몸은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지만 내면의 스승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수준에서도 내면의 스승이 아닌 마음의 형태를 띤 습관이 지시합니다. 욕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지시하지요. 또한 지성적인 수준에서는 마음, 즉 지성이 사물을 분별하고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동굴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고 명상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도 아니고 신도, 스승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라야 진정한 스승이 알아볼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화하고 왕은 왕과 협상하는 법이니까요. 왕은 다른 나라 장관을 찾아가서 나라의 일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왕은 경찰을 찾아가 양국의 중대사에 대해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경찰 부서나 장관급의 일이라면 대통령이나 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이 왔을 때만 왕이 나가서 영접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진아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은 오직 왕하고만 말하니까요. 우리는 많은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것을 다 하고 수백 년 동안 동굴에 은거할 수도 있지만 내면의 스승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스승의 일이 아니므로 내면의 스승은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을 만날 적당한 때까지 기다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명상하고,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따르고 온갖 고행과 채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성불이나 신의 왕좌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다른 부처를 만나거나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리 내면의 스승을 일깨울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지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많은 수행법에는 서로 다른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롭지 않은 길

은 없습니다. 어떤 이로움이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런 인도도 받지 않고 기도해도 이로움이 있으며, 교회나 절에 간다거나 예배나 순례를 해도 정서적으로 고양감을 느끼며, 그를 통해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보통은 신앙심이 깊은 일을 한다거나 채식을 한다거나 매일 교회를 간다거나 성지 순례를 한다거나 하는 뿌듯함이 있지요. (스승님 웃으심) 그것은 우리의 예고, 우리의 자만심을 키울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행히도 영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컷 놀게 놔둬라. 놀다 지치면 어머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조급해하거나 제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이들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대로 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식대로 사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언젠가 성장하고 나면 그들도 어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스승, 부처가 여러 수준의 삶과 깨달음의 사상을 전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선택하지요. 하지만 스승은 서두르거나 초조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힘이 없이 합니다. 노자가 “힘이 없이 하라(爲無爲).”라고 했듯이요. 그것은 산속에 은둔하거나 남들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지적

인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스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 알 겁니다.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으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광과 생명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가르쳤고, 항상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을 따르려면 신이 어디에 있고,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나 부처가 했던 것처럼 신을 깨닫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애쓰기만 할 것입니다. 예고를 가지고요. 하지만 크게 깨닫고 나면 힘이 없이 하며,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상상이나 겁니까? 수천억 가지 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내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존재가 됐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모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문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 면에서 성공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힘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발휘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 그게 유일한 이유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을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수없이 염주를 돌립니다. 그럼요! 채식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가지 주문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횃수를 세어 놓은 장부도 있는걸요.” (대중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저런 신들에게 경배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절을 하며, 여기저기 순례를 다니고 온갖 예배와 의식을 행하고, 심지어 명상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주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러다 얼마 후엔 지쳤습니다. 내 내면의 열망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직접 가리키는 이 법문 아닌 법문, ‘관음법문 觀音法門’을 수행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모든 게 떨어져 나가자 진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예. 우리도 알아요!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 자신이 부처라는 거지요.” 그러면 깨달은 거겠지요. 그러나 그건 조사들이 수백, 수천 년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성(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직접 가리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건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지성으로써 불성을 이해하고, 손으로 만지고,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은 우리가 상상하고, 만지고, 느끼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것으로,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고 동물들이 서로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부처는 진동과 빛으로써 우리 내면의 부처를 가르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부처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언어는 부처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마치 동물들의 짖는 소리나 지저귀는 소리로는 인간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동물의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나 우리를 반기는 소리를 좋아한다 해도 그 소리로 우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이해력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부처(무상의 힘)에겐 진동과 빛으로 나타나는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이 법문 아닌 법문인 것입니다. ‘관음觀音’은 진동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내면의 진동이지 외부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며, 일단 그것을 지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

려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의 왕국은 온통 빛과 음악, 아름다운 음률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여기까지는 도달해야만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서서히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신은 이 세상 혹은 다른 많은 세상의 길 잃은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빛으로 화현하며, 이에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빛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층에 따라 구름의 성질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햇빛이 안경을 통과하거나 다른 곳에 반사되면 빛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는 아름다운 음률로 나타나는 신의 갖가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불성을 알고 신의 왕국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추측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케이크를 먹어 봐야만 그것이 달다거나 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겨 주거나 대화할 만한 다른 왕이 없으면 왕은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른바 스승이라는 존재는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장 높은 경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아는 그 외의 경우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아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법문을 따라 수행하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고, 그것 때문에 진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스승님 웃으심) 동등한 상대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언제든 우리 자신의 진아가 나타나면 우리는 또 다른 진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백 가지를 가르쳐 온통 분주하게 만들 수 있다 해도 그건 시간만 보내는 것일 뿐, 그것으로는 진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최고의 삶의 방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말한 것을 믿는다면 시도해 봐도 됩니다. 만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다음까지요. 아마 백 년이나 천 년 후가 되겠지요. 여러분은 아직도 잠자고 싶어하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자신을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동에 옮겨 이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 되면 이생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잠든 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지요. 아마 다음번엔 깨어나겠지만 그건 우리가 얼마나 잠을 자고 싶어하는지에 따라 지금부터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묻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성원해 주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단히